채움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롬15:1~13)

1.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2.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3.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4.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5.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6. 한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채움 캠프,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TV에서 방영되는 토크쇼 프로그램 중에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제목의 토크쇼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보시고 아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는 것들을 찾아봤더니, 그 프로그램의 캐치 프레이즈가 뭔가 하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힐링, 몸과 마음의 치유, 대세는 힐링이다!"
"몸과 마음을 힐링시켜줄 신개념 토크쇼! 누구나 힐링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각 분야를 대표하는 최고 게스트들과 함께 그들의 진솔한 인생이야기를 들어본다. 게스트뿐 아니라 온 국민의 마음까지 힐링시켜줄 힐링캠프!"
캐치 프레이즈라는 게 늘 그렇지만 굉장하지요?
하여간 이게 야심인지 욕심인지 착각인지 대단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서 웃음이 나와요.

‘힐링의 아버지, 이 경규! 힐링토크의 귀재 김 제동, 대한민국 힐링녀 성 유리! 매주 월요일 밤 11시 15분, 당신의 지친 마음을 힐링합니다!!’
여기서 웃음이 나오는 것은, 이 경규 씨나 김 제동 씨, 성 유리 씨를 우습게 여겨서가 아닙니다.
힐링의 아버지 다음에 이 세상에 사는, 아니면 살았던 그 누구의 이름을 갖다 붙여도 웃음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힐링토크의 귀재도 힐링녀라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힐링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도 웃기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힐링합니까?
‘힐링토크의 귀재 김 제동’도 웃기는 얘기인 것은, 힐링토크의 영원한 귀재는 이 땅에 오신 예수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밖에는 인간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토크의 귀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힐링녀 성 유리’도 웃기는 이유는 진정한 힐링녀는 성령님밖에 안 계십니다.
아주 재밌는 것은 삼위일체의 틀을 가지고 캐치 프레이즈를 만든 거예요.
이거 뭐 비난할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리라 믿습니다.
만약에 왜 웃느냐고 대든다면, 정말 교만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냥 웃자고 한 얘기로 쓴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 말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제작의 의도가 각 분야를 대표할만한 명사들을 모셔다가 그들의 인생이야기를 진솔하게 듣다보면 힐링이 되는 겁니까?
혹시 그 효과는 인정할 수 있어요, 정말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아파하는 사람이 힐링캠프의 이야기를 듣다가 통증을 가라앉히는 진정제를 먹은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힐링은 안 돼요.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진짜 육체의 상처를 자기들이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조물주께서 낫게 한다는 고백을 합니다, 꿰매기만 하는 거지 살이 붙는 것은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지.
마음의 찢어짐과 생채기와 아픔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므로 몸과 마음의 힐링은 의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상담가가 하는 것도 아니고, 웃자고 내건 캐치 프레이즈의 힐링의 아버지 이 경규, 힐링토크의 귀재 김 제동, 힐링녀 성 유리가 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힐링이 되는 겁니까?
힐링은 명사들의 얘기를 듣고 되는 게 아니라, 채움으로써만 됩니다.
마음의 생채기도 그것을 채우면 행복할 것이라 믿었던 것들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내가 사랑함으로 마음에 살이 되었던 것들이 떨어져나갈 때 그 자리가 찢기고 생채기가 되는 것이고, 빈 공간 때문에 외로움과 허무함을 느끼면서 괴로워지는 겁니다, 채움의 문제에요.
채워지지 않으면 힐링이 될 수가 없고, 올바른 것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으로 채우기 전까지는 힐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늘 배신이 나옵니다, 배신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배신이라는 게 생기는 것 아닙니까?
믿었다는 얘기는 마음이 붙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좋아했고 사랑했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만 배신하는 게 아니에요.
돈도 배신하고 성공도 배신하고 모든 게 다 우리를 배신할 겁니다.
그러므로 배신하지 않을 수 있는 참다운 것으로 마음이 채워져야 힐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절과 2절은 마치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까지 배워왔던 모든 내용을 총동원해서 총정리 하라는 요구를 담고 있는 구절 같아요.
로마서에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되어왔지 않습니까?
그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야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1절과 2절이.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면서, 그 믿음이 약한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는 얘깁니다.
이게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배워왔던 모든 이야기들이 잘 이해되어 있지 않으면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총정리 하는 겁니다.

자,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믿음이 강한 것이 어떤 상태고 믿음이 약한 것은 어떤 상태의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힐링, 치유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항상 믿음이 강한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믿음이 약한 자라는 것은, 성장 내지는 치유, 회복이 되어야 되는 상태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자리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마치 TV 토크쇼의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에서 나오는 것처럼, 힐링이 되면 기쁜 겁니다.

그런데 힐링의 진짜 내용은 채워짐으로써 되는 것이므로 진짜 채워지면 기쁨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을 기쁘게 하라는 권고를 주십니다.
이처럼 기쁘게 하는 일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어떤 자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만남의 예를 들 수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목사님과 교인들의 만남일 거예요, 물론 일반 교인이 목사님보다 믿음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말해서, 그 교회에서는 믿음이 가장 강한 분이 당위적으로 목사님이어야 되고 그 목사님이 교인들을 끌고 가면서 그 약한 자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목회상담의 완성의 가능성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교인으로 하여금 기쁨이 넘치도록 상담해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숨어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강한 것이 어떤 상태인가를 먼저 보는데, 로마서에서 배운 모든 걸 다 동원해보는 겁니다.
믿음이 뭐였습니까?
우리 마음심장을 꺼내서 그 누구도 그 무엇에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로마서가 말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마음을 돈에 주는 것, '난 어떡하든지 돈을 벌어야 해' '자식을 잘 키워야 돼, 그래야 내 인생이 성공할 수 있어!' 자식에게 주는 거지요.
이게 자식을 믿는 것이고 돈을 믿는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마음심장을 드리는 것이데, 그러면 마음을 드리는 방법은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을 빼어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죽음으로써만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믿음인데,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나타나는 일이 뭡니까?
약속되어진 성령님의 활동하심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천국이 단순히 약속어음과 같은 소망의 대상이 아니라 손에 쥐어진 현찰처럼 느끼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내 것이 되었다고 하는 느낌의 농도가 짙어지는 것이 믿음이 강한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의 농도가 짙어지는 것이 믿음이 강한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가 그걸 대비해보면 쉽게 나의 믿음의 농도를 측정해볼 수 있어요.
즉, 재벌총수의 아들과 재벌과의 관계에서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재벌총수라는 것 때문에 갖게 될 마음의 안정감이라든지 세상을 향해 갖게 될 자신감 같은 것과 하나님아버지와 나 사이에서 내 아버지가 조물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 아들 됨의 신분에서 얼마나 세상을 대하여 자신 있고 확신 있고 호연지기를 가질 수 있는가를 재벌총수의 아들의 입장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해왔어요.
천국이 손에 쥐어진 현금같이 느껴질 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이 단순히 교리적으로 문자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에서 느끼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주님께서 풍랑 만난 배 위에서 잠을 주무시는 것이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주 여호와를 의지해서 혈혈단신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가 목 베임을 당하기 전에 감옥에서 잠을 자는 일이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돌에 맞아 죽는 스테반이 자기를 치는 자들을 용서하는 것, 하늘이 열린 사실을 손에 현찰로 쥐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늘과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이 나의 현찰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티끌처럼 작게 여겨지는 것, 그래서 믿음이 크면 클수록 나타나는 일이 세상에서 내게 주어지는 문제와 일들이 한없이 반비례해서 작아지는 겁니다.
혹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조차도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농도가 짙어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강한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세상 가치로부터 자유함으로 나타나고, 나 스스로가 기대기 위해서 나 자신에게 만들어놓은 원칙들에 매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현상적인 열매까지도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강해지는 비결이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죽으므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동안 기다리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세상일을 잘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천국과 하나님에 대한 현금이라고 하는 그 느낌을 강화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것은 반대가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천국보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 세상의 현실과 사람과 문제와 상황들이 더 앞선 현실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강하고 약한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기쁨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이 무얼 말하는 것일까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기쁨을 만들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빈 마음을 채우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이미 십자가를 붙잡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 마음속에서 천국과 하나님이 실제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상태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원을 들어주는 겁니까?
'사업이 잘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을 위해 '내가 사업을 위해 기도하면 사업이 잘 될 거야!', 건강이 문제라는 사람에게 '당신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드릴게요!'
이런 게 믿음이 강한 겁니까?
기도 많이 한다는 신앙의 선배로서의 권사님들, 맨날 교인들 기도제목 적은 수첩을 가지고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은 그분들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을 세워가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을 힐링해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기쁨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직 기쁨은 빈 마음이 채워질 때인데, 그 빈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도록 만들어진 것이에요, 원래 창조의 의도가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를 기쁘게 한다는 것은 그의 어줍지 않은 약한 믿음에서 갖게 된 이 땅의 소원들을 함께 힘써주고 동조해주고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빈 마음속에 하나님을 채워 넣는 겁니다.
내가 채워 넣을 수는 없지요, 하나님이 채워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하면, 6절에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서 첫 번째 현실이 되는 것, 하나님이 1등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상담의 완성입니다.

사업이 안돼서 목사님께 와서 상담을 합니다, 꼭 목사님과 교인 관계가 아니라도.
가정에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 그래서 와서 상담을 합니다.
자식이 집을 나가고 허랑방탕해서 문제가 돼서 상담을 하고 있다.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로서 그를 어떻게 상담해주어야 됩니까?
자식문제 전문가를 소개해줍니까?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줍니까? 그 병에 대해서 잘 아는 의사를 소개해줍니까?
아니죠.
십자가에서 그 병 걸린 사랑하는 가족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잘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 죽도록 권면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는 세상의 일로부터 그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켜서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담의 ABC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사업에 대해 죽고 자식에 대해 죽고, 그래서 사업과 자식과 문제를 겪고 있는 가족보다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앞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진단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상담의 기초입니다.
절대로 그 문제에 빼겨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흘러가도록 그대로 둔다거나 그쪽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가 내 앞에 서면 그것은 전쟁터에요, 어떡하든지 그 사람의 마음을 빼어서 하나님께 돌려야 되고 그 사람 스스로가 십자가를 붙들어야 마음이 돌아설 수 있으니까.
이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저께도 말씀을 함께 듣고 공유하는 분들이 강릉에 내려오셔서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그런데 꼭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셨다, 이 고백이 먼저 나와서는 안돼요.
마음을 돌렸다는 것은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손 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잘해주시나 훔쳐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돌렸으면 하나님과 천국이 내 마음속에 현실로 느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된 성령님께서 오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천국을 내 기업으로 내 아버지로 현실처럼 느끼게 해주실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채워지고 천국이 채워지면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기쁠 수가 있게 되고, 그 채워짐의 농도가 짙어지고 양이 많아질수록 그렇게 쩔쩔매던 그 사람의 가족문제가 그 사람 마음에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티끌처럼 작아지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하루가 걸릴 수도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지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짐으로써 기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각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급박한 사업보다, 문제 있는 자식보다,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가족보다 먼저 마음에 와 닿는 하나님이 1등이 되는 마음이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믿음이 약한 자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3등 4등 5등이었다가, 사업이 1등이고 자식이 2등이고 건강이 3등이고 하나님이 4등이었다가, 1등의 자리로 회복될 때,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고 이게 바로 상담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상담학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치유 상담이라고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 자신이 십자가를 통해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기억이 있고, 그 마음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기도하고 기다리는 중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과 천국이 현실이 된 경험이 있다면 누구나 다 완성된 상담을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채워져야 기쁨이 옵니다.
오늘 본문에 기쁨과 이 로마서의 결론 부분에서 믿음을 연결시켰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기쁘지 아니한가?' 하는 이 탄성을 믿음이 약한 모든 형제자매들을 향하여 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사람을 만나기 전에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나 자신이 하나님으로 천국으로 기쁘게 하여주시고, 이제 누구를 만나든지 그를 통하여 내 기쁨을 찾으려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그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이 채워지는 믿음의 역사가 그에게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